실손보험 점검회의

모 두 발 언

2026. 11. 19.(목) 14:00
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신 진 창

Ⅰ. 인사 말씀

안녕하십니까,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진창입니다.

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
보건복지부, 금융감독원,
보험개발원, 건강보험공단, 신용정보원,
그리고 **보험업계** 및 **플랫폼 관계자** 여러분께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실손보험은 약 4천만의 국민이 가입한
'제2의 건강보험'으로,

※ '25.12월말 기준 실손보험 피보험자수 약 4,035만명

국민의 **의료비 부담**을
함께 나누어 지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그러나 지금의 실손보험이
그에 **걸맞은 역할**을 하고 있는지는
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실손보험 가입자의 **약 65%**는 **보험금을 받지 않고**
보험료만 내고 있는 반면,
상위 10%가 전체 보험금의 **약 74%**를 받고 있습니다.

일부 가입자가 **과잉 이용**하여
실손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,
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
지금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.

실손보험이 진정한 의미의 '제2의 건강보험'이 되어
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,
받아야 할 보험금은 빠짐없이, 손쉽게 받고,
보험료는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게
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오늘 점검하는 세 과제인
①**미청구 보험금 찾기**, ②**실손24 연계 확대**,
③**계약전환·선택형 할인**은
서로 동떨어진 과제가 아니며,
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
토대가 될 것입니다.

Ⅱ.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사업

최근 3년간 국민이 청구할 수 있음에도
찾아가지 않은 실손보험금은
최대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.

※ 미청구 실손보험금(추정) : '25년 약 3,386억원, '24~'26년 약 1조원

미청구 보험금의 상당액은
다녀온 **병원·약국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,**
서류를 발급받아 사진 찍어 앱에 업로드하는
복잡한 청구절차에 비해 **병원비가 적어서**
놓친 보험금입니다.

국민께서 **실손보험금을 손쉽게 청구**하실 수 있도록
실손24를 도입하였으나,

실손24가 있어도 내가 다녀온 병원을
일일이 기억해서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었습니다.

오늘 소개하는 '**미청구 보험금 찾기**' 서비스는
이 빈틈을 메웁니다.

실손24 앱에서 한 번만 신청하시면
카드 결제내역과 보험금 청구내역을 확인하여
과거 3년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실손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.
안내를 받으시면 앱을 통해 **바로 청구**하실 수 있습니다.

국민이 힘겹게 데이터를 기억해내지 않아도,
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갈 것입니다.

과거 3년 동안의 미청구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만큼,
시효가 지나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찾아가실 수 있도록
서둘러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.

다만, 이 서비스는 **병원 이용일자**, **실손보험금 청구이력**,
결제정보와 같이 **민감한 정보를 결합**하여 활용하는 만큼
명확한 동의 절차, 필요 최소한의 정보 활용,
철저한 보안 등 **준비과정**을 거쳐
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Ⅲ. 「실손24」 연계 확대 지속

찾아드린 미청구 보험금을 **손쉽게 청구**하시려면
전국 병원과 약국 어디서나
실손24가 작동해야 합니다.

실손24 연계율은 작년 말 23.7%에서
11.18일 현재 54.2%까지 높아졌습니다.

※ '26.11.18일 기준 105,643개 중 57,258개 연계, 실손24 가입자 약 596만명

10월부터는 네이버·토스 앱 안에서도
보다 손쉽게 청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하지만 아직 **절반의 병·의원과 약국**에서는
여전히 **종이서류**를 떼어야만
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.

실손24 연계율이 곧 국민의 편리함으로 연결됩니다.

국민께서도 **보험금 청구** 등의 **권리**를
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
실손24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,
병원에도 실손24 연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도 국민께서 더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
실손24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**노력**하겠습니다.

Ⅳ. 계약전환 할인 · 선택형 할인

보험료 측면에서도
실손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나눠질 수 있도록
제도를 개선합니다.

재가입 주기가 없는 1·2세대 실손은
보장이 넓은 대신 보험료 부담이 큽니다.

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데도
높은 보험료 때문에 **계약 유지를 고민**하시는 분들께
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,
11.23일부터 **'계약전환 할인'**과 **'선택형 할인'**이 시행됩니다.

※ '13.3월 이전 체결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·2세대 실손 가입자

5세대 실손으로 **전환**하시면
별도 심사 없이 전환되고,
3년간 보험료를 **50% 할인**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존 계약을 **유지**하고 싶으신 분은
도수치료, 비급여 MRI 등
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보장만 **빼고**
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.

60세 여성 1세대 가입자의 경우
보험료를 **최대 88%**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

※ 1세대 60대 여성 월 보험료 17.7만원 → (전환 할인시) 2.2만원(△87.8%),
(선택형 할인시) 11.1만원(△37%)

다만, 가장 중요한 것은
소비자가 **충분히 이해**하고 **스스로 선택**하는 것입니다.

전환 이후에도 최대 **6개월**까지 **철회**할 수 있도록 하고,
설계사가 먼저 연락하는 **Outbound 영업**을 **금지** 하는 등
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.

보험사는 바뀌는 보장, 할인 종료 후 보험료,
철회 요건을 **알기 쉽게 안내**해 주시고,

금융감독원은 판매현장에서
불완전판매나 **무리한 전환 권유**가 없도록
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시행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,
전산시스템, 약관, 상담인력 등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여
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
실손보험을 4천만 국민의 **든든한 의료안전망**으로
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//